

# 누에 양잠능가 새 소득원으로



◇5령 3일된 누에가루의 혈당강하 효과가 가장 크다.

홍정기씨(柳江善)는 사와경회대 약대(鄭聖顯) 교수팀에 의해 공식발표된 「누에가 혈당강하제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가 파문이다.

「누에의 보습(古의서와 의국인 누고)에 따르면 누에의 누에번데기 등의 당도변환은 아니라 고혈

## 당뇨병환자의 혈당강하제로 탁월 농진청·경희대 약대 연구팀 공식발표

누에가 당뇨병환자에 게는 새로운 혈당강하제로 양잠능가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증연구를 통해 기르던 누에가 이전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생약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열린 공식발표회에서 홍정기씨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또다른 의미의 획기적 진보로 평가되고 있다.

누에가루에 대한 수요가 지난 7개 산지 양잠농업협동조합에서 5월 3일된 누에

가량 큰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때문이다. 누에가 누에가 작아 그만큼 가루도 적게 나온다.

5령3일된 누에가루는 6008과 7만5천 원, 5령3일 이상된 것은 2만5천원에 국한한 약재상업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누에가루는 누에를 뜨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맛과 비수하다.

경동약사에서는 한약재료들은 6백9에 6천~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혈당강하제로는 누에를 건조시킨 백강잠(白僵蠶)을 보습(補濕)추진력을 받아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 연구소(柳江善)는 「이 당도변환제로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사용이 간편하며서도 기존 치료제와 같은

■백강잠(白僵蠶) : 성질이 고르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어린 아이의 경간(驚癇)을 주로 치료하고 세가지 벌레를 없애며 흑간(黑癩)을 덜어주고 일체의 풍질에 피부가 가려우며 마비된 것과 부인의 하혈(下血)을 치료한다.

양잠은 자연히 강사(僵死)한 것인데 회고 끈은 것이 좋은 것이 되니 4월에 취득해서 중습(中濕)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중습(中濕)하며 독이 생긴다.

참쌀뜨물에 담가서 주둥이는 버리고 생강즙에 볶아서 쓴다.

■누에번데기 : 성질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풍(風)과 노수(勞瘦)를 치료하는데 즉 누에 고치를 말려서 실을 한 다음에 번데기가 된다.

### 누에보습중잠상관련 처방

과간편한 복용이 가능하도록 캡슐제로 보완한 것이 되니 4월에 취득해서 중습(中濕)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중습(中濕)하며 독이 생긴다.

이로써 당뇨병치료약(누에가루)생산이 현재 국내 양잠업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진청 연구소(柳江善)는 「이 당도변환제로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사용이 간편하며서도 기존 치료제와 같은

산체시험장은 세계 유일의 산체 전담 연구기관으로 산체의 품종개발과 재배법 연구를 위해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등 10명의 직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종은 약 3천2백여종, 산체로 이용가능한 종은 55과 3백21종인데, 이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30~60여 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자생하

효과가 있으며, 누에를 이용한 민간요법보다 약 22% 높은 혈당강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체 인성실험을 한 경희대 약대(鄭聖顯) 교수는 「백강잠에서 포도당의 전화를 지연시키면서 서서히 인체에 흡수돼 기존 제제와는 달리 공복시에도 전혀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자가 허기를 느끼지 않아 과식으로 인한 혈당상승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진청 연구소(柳江善)는 「이 당도변환제로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사용이 간편하며서도 기존 치료제와 같은

과간편한 복용이 가능하도록 캡슐제로 보완한 것이 되니 4월에 취득해서 중습(中濕)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중습(中濕)하며 독이 생긴다.

이로써 당뇨병치료약(누에가루)생산이 현재 국내 양잠업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진청 연구소(柳江善)는 「이 당도변환제로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사용이 간편하며서도 기존 치료제와 같은

이효성의 「메밀꽃 필 무렵」이란 소설의 무대가 되었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에서 태어난 방항으로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물의 맑음이 저울과 같은 흥정을 울리고 온후(溫厚)로 5백미터에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들어서면 눈에 띄는 흰 건물이 바로 평창산채시험장(장장장 洪正基)이다.

지난 93년 10월 29일 준공식을 갖고 출범한

## 약용 연구 기관을 찾아서 ⑥ 평창산채시험장

산체시험장은 세계 유일의 산체 전담 연구기관으로 산체의 품종개발과 재배법 연구를 위해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등 10명의 직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종은 약 3천2백여종, 산체로 이용가능한 종은 55과 3백21종인데, 이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30~60여 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자생하

난 92년부터 국내에 자생하는 산체의 유전자원 수집을 시작하여 2년간 52종의 산체 3천여점을 수집, 보존했으며 지속적으로 특성조사와 유랑개체 선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유전자원은 물론 앞으로 수집될 유전자원은 특성검정을 통해 유랑개체를 선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나아가 교배육종과 함께 유전공학기법을 활용한 품종개발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험장에서 산체를 원료로 한 통조림, 차, 음료, 냉동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수, 스프 등을 개발

단 것을 채취, 이용해 왔으나 최근엔 산체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시험장의 재배로 전 환되는 산체를 손질이 높은 작물로 개발하여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목표 아래, 크게 3개의 추진 방안을 실천, 운영중 에 있다.

「유망한 산체의 개발과 품종개발이 우선」이라고 밝히는 홍정기(洪正基)씨는 「그러나 아지는 산체에 관한 체계적인 유전자원 수집이나 품종개발 등에 관한 국내외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시험장은 지

산체시험장은 세계 유일의 산체 전담 연구기관으로 산체의 품종개발과 재배법 연구를 위해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등 10명의 직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종은 약 3천2백여종, 산체로 이용가능한 종은 55과 3백21종인데, 이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30~60여 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자생하

## 유전자원수집·품종개발에 역점 차·음료등 가공식품 개발 주력

이오에도 산체는 대부분이 양잠식품으로서 특수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다. 취나물의 함량효과가 있는 것은 최근 밝혀진 사실

95년에는 더덕의 향기 제고를 위한 생육환경별 방상분류 분석 조사 등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연구와 산체의 시설재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나갈 것이며 산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취나물과 품질 증수를 위한 해가림재배기술, 누룩지 찌나물의 대량번식을 위한 종자의 발아율 향상 및 조직배양기술 등을 개발하였고 일부는 계속 연구중에 있다.

지난 93년에는 참취 51종(신물체 2천7백43점, 종자 14리터) 등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이곳에서 가시없는 두릅, 1계통과 공취 1계통 등 유랑개체를 선별하였다.

그밖에도 취나물과 품질 증수를 위한 해가림재배기술, 누룩지 찌나물의 대량번식을 위한 종자의 발아율 향상 및 조직배양기술 등을 개발하였고 일부는 계속 연구중에 있다.

이오에도 산체는 대부분이 양잠식품으로서 특수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다. 취나물의 함량효과가 있는 것은 최근 밝혀진 사실

95년에는 더덕의 향기 제고를 위한 생육환경별 방상분류 분석 조사 등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연구와 산체의 시설재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나갈 것이며 산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취나물과 품질 증수를 위한 해가림재배기술, 누룩지 찌나물의 대량번식을 위한 종자의 발아율 향상 및 조직배양기술 등을 개발하였고 일부는 계속 연구중에 있다.

지난 93년에는 참취 51종(신물체 2천7백43점, 종자 14리터) 등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이곳에서 가시없는 두릅, 1계통과 공취 1계통 등 유랑개체를 선별하였다.

그밖에도 취나물과 품질 증수를 위한 해가림재배기술, 누룩지 찌나물의 대량번식을 위한 종자의 발아율 향상 및 조직배양기술 등을 개발하였고 일부는 계속 연구중에 있다.

